

‘포스코 광양 창조경제센터’ 개소

광양 벤처·강소기업 육성허브로 키운다

소재·부품·에너지 등 창업 지원
기술지원단 구성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시가 벤처·강소기업 육성허브로 거듭난다. 포스코가 창조경제의 성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포스코 광양 창조경제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포스코는 27일 “지난 25일 국내 최초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센터인 광양 창조경제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신태욱 광양부시장,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김진일 사장, 우중수 포스코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진일 사장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창조경제가 광양 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꿈과 비전을 가진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경제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양 창조경제센터는 소재·부품·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창업지원 허브 구축하게 된다. 또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수 벤처창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특히 첨단소재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반성장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에코(ECO) 산업단지를 만들어 ‘부산물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R&D과제를 발굴, 연구기관에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RIST 광양바이오센터 1·2층에 마련된 광양 창조경제센터는 연면적 792㎡ 규모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과 모형제품 전시실, 컨설팅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소재·에너지·환경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4개 사가 입주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전남도, 광양시, 광주전남중소기업청, RIST, 전남 테크노파크와 광양 창조경제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창조경제의 성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로써 광양지역 소재·부품·에너지·환경 분야의 R&D와 벤처창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 뒤 올 하반기에 인천 송도에도 창조경제센터를 개설해 지역별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 25일 열린 ‘포스코 광양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낙연(오른쪽에서 세번째) 전남지사 등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신축 광양시새마을금고 지점 곳곳 하자

내·외벽 금 가고 빗물 새
자체감사서 부실 시공 드러나

광양시새마을금고가 광양읍지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해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광양시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양읍지점을 신축해 개점했는데 자체감사 결과 건물 내·외벽에 금이 가 곳곳에서 빗물이 새고, 건물 외벽 대리석이 깨지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 건물은 지난해 8월 착공해 지난 4월 개점한 뒤 지하 1·2층 차고 및 주차장, 2·3층 사무실 전장과 창문 등으로 빗물이 들어와 실내에서는 비만 오면 물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건축 시공사 건물 외벽 마감재를 특정 제품의 대리석으로 설계했으나 “열과 물에 취약하고 강도가 약한 석종”이라는 감리단의 지적이 있었다.

또 감리단에서는 화강석 계열 석종으로 건물 외부마감재 석재 변경을 요청하며 철저한 시공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시공사는 이 대리석으로 외벽 마감 공사를 진행해 현재 이 석재가 깨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또 “지하층 외벽 하단의 옹벽 배근이 건축 구조 설계시 잘못 설계돼 추가 배근이 필요하다”고 감리단이 시공사에 의견을 내는 등 건축설계부터 허술하게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계약시 시공사와 하자보수가 행 증권을 확보해 두고도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하자비용 일부는 금고 예산으로 지출하자’는 의견을 다뤄 일부 이·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새마을금고는 광양읍 칠성리 소재 부지 1289㎡(390평)을 지난해 매입해 광양읍 지점(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을 신축해 지난 4월 준공해 영업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권오봉 광양경제청장 플랜트산업 용접교육생 대상 특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이 최근 광양만권HRD센터를 방문해 플랜트산업 용접교육생들에게 특강을 했다.

지난 25일 이 강의를 통해 권 청장은 “지속적인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최근 전남지역 산업계 대상 직종별 수요조사에서 용접인력이 가장 필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생들에게 숙련된 용접 기술 인력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양경제청은 8주간 지역대학생 입주기업 현장체험 학습을 계획 중이다.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최정원 & 더 뮤즈’ 뮤지컬 갈라 콘서트 큰 호응

8월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 2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 배운아트홀에서 ‘최정원 & 더 뮤즈’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유명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직접 공연을 진행하며 관객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광양제철은 매일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융성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직장 배달 콘서트’ 프로그램을 유치해 이번 공연을 펼쳤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2015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양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일시 2015년 9월 18일(금) ~ 20일(일) 3일간
장소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신속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5156-5596

주최 | 광주일보사 每日新聞社